

3. 삶을 계획하기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삶에서의 다짐을 기록해봅시다.

<가정예배 순서지>

날짜: 4월 24일

형통이 최고의 복

4.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염려로 현재를 낭비하지 않게 해 주세요.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V.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 39:2-3]

◆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342장
- 성경읽기 : 눅 39:1-10 (구약 60면)
- 말씀나눔 : 형통이 최고의 복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0. 본문 배경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를 돌보셨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신의 심복으로 삼고 모든 집안일과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일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며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겠습니까?”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나 유혹의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합니다.

1. 말씀 관찰

1)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나요? (2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2절).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고된 종살이를 시작할 때 요셉의 나이는 고작 17세였습니다. 한참 심리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종이 되어서 그로부터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징 중 하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현재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2)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되었나요? (3절)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보여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3절). 3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 쓰였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종인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 주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 주는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2. 말씀 적용

1)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2)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